

氣機 運行을 중심으로 본 感情과 病症의 相關性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¹

安宰永¹ · 趙學俊¹ *

Relationship of Emotions and Several Diseases from the Viewpoint of Gi(氣) Movements

Ahn Jae-young¹ · Jo Hak-jun¹ *

¹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Semyung University

We get following conclusion in relationship of emotions and several diseases from the viewpoint of Gi(氣) movements. 『Naegyeong(內經)』 state mainly relationship of emotions and five organs, relationships of emotion and Gi(氣) movements in detail, but refer about symptoms of diseases that happen by anger, fear, and astonishment. 『Yumunsachin(儒門事親)』 supplement the relationships of emotions and five organs in 『Naegyeong(內經)』, and 『Uihak-ipmun(醫學入門)』 present medical treatments for each symptom of diseases that is led by emotion.

According to 『Naegyeong』, as well as emotions can lead to various symptoms of diseases by affecting Gi(氣) movements, particular symptoms of diseases can affect in emotions by affecting Gi(氣) movements. Because emotions can affect to symptoms of diseases through Gi(氣) movements, we can treat with drugs that control Gi(氣) as well as with methods that control emotions in case of emotions leading to particular symptoms of diseases. Because particular symptoms of diseases can affect to emotions through Gi(氣) movements, we can treat with methods that control emotions as well as with drugs that control Gi(氣) movements in case of particular symptoms of diseases leading to emotions.

We think the theory of Gi(氣) movements can be used as a principle of acupuncture as well as of drugs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of emotions and symptom of diseases from the viewpoint of Gi(氣) movements.

Key Words : relationship of emotions and several diseases, relationship of emotions and five organs, movements of Gi(氣)

I. 序論

* 교신저자 : 조학준. 충북 제천시 신일동 세명로 117번지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E-mail: johohun@kornet.net Tel: 043-649-1347.
Fax: 043-649-1702.
접수일(2009년 10월 23일), 수정일(2009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2009년 11월 20일)

感情은 喜·怒·憂·思·悲·恐·驚으로서 韓醫學에서 飮食傷, 過勞傷과 함께 內傷 諸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도 感情의 부조화로 인해 수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중대한 원인

이 된다는 사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怒는 肝을, 喜는 心을, 思는 脾를, 悲는 肺를, 恐은 腎을 傷한다고¹⁾ 하여 感情이 五臟病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素問·舉痛論』에서는 感情이 氣機의 運行에 영향을 미쳐서 특정한 질병을 일으킨다고²⁾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感情으로 유발된 病症이 어떤 臟腑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그 치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許浚은 『東醫寶鑑·內景』 「九氣」에서 『內經』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神仙九氣湯과 正氣天香湯을 제시하고 있으며, 李梴은 『醫學入門』 「諸氣」에서 感情에 의해 氣의 運行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하는 五臟의 病症과 그 治療를 언급하여 『內經』의 미비점을 보충하고 있다.

최근에도 感情과 病症의 상관성에 대한 문헌 및 임상 연구가 몇 가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엄현섭³⁾은 情緒(感情)와 Stress의 關係에 관해, 이태균⁴⁾은 感情과 부인과질환과의 상관성에 관해, 고태준⁵⁾ 등은 STRESS 現象과 關聯된 諸氣證에 관해 문헌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이승재 등⁶⁾은 氣정과 소화기 질환에 관해, 박병준 등⁷⁾은 感情과 癌의 相關성에 대해 임상적으로 연구하였고, 도은섭⁸⁾은 七精過度로 인한 膀胱炎症의 治驗例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感情이 病症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 지, 또 感情으로 발생한 病症을 심리치료가 아닌

약물로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이론 근거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었다.

이에 주로 氣機의 運行에 초점을 맞추되 주로 『內經』과 『醫學入門』의 學설을 근거로 感情과 病症의 相關性을 밝혀보고자 한다.

II. 本論

1. 感情과 五臟의 關係

『素問·陰陽應象大論』에는 五行歸類에 따라 肝은 怒와, 心은 喜와, 悲는 思와, 肺는 憂와, 腎은 恐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感情에 의해 발생하는 五臟病症에 따라서 相剋하는 感情으로써 치료할 수 있음⁹⁾을 밝혔다.

또한 『素問·玉機眞藏論』에는 感情이 그 배속된 臟氣에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相剋하는 臟氣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¹⁰⁾ 점을 밝혔다.

더 나아가 『素問·宣明五氣』에서 喜, 悲, 恐은 그 배속된 臟氣에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憂는 肺에 배속된 感情이지만 肝과 관련도 있으며, 畏는 대체로 腎과 關係가 있는 감정이지만 脾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相剋하는 臟氣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¹¹⁾ 점을 밝혔다.

또한 『素問·經脈別論』에서 恐은 肝에서 喘이 생기게 하며 驚·恐은 肺에서 喘이 생기게 한다고¹²⁾論하였는데, 이는 恐이 腎 뿐만 아니라 肝과 肺에도 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驚은 肺에도 병을 일으킨다고 밝힌 것이다.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4.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46.
3) 엄현섭. 情緒(七情)와 Stress의 關係에 관한 理論的인 研究. 동서의학. 1992. 17(4). pp.5-20.
4) 이태균. 부인과질환과의 상관성에 관한 문헌적 고찰. 동서의학. 1990. 15(4). pp.67-79.
5) 고태준. 이상용. STRESS 現象과 關聯된 諸氣證에 關한 文獻的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2000. 8(2). pp.317-327.
6) 이승재, 정승현, 이원철. 氣정과 소화기 질환에 관한 비교고찰. 동의신경정신과학지. 1996. 7(1). pp.121-135.
7) 박병준, 김성훈. 七情과 癌의 相關성에 對한 東西醫學的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1999. 8(1). pp.223-243.
8) 도은섭. 七精過度로 인한 膀胱炎症의 治驗例. 월간 의약정보. 1985. 6. pp.154-155.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4. “肝主目… 在志爲怒, 怒傷肝, 悲勝怒… 心主舌… 在志爲喜, 喜傷心, 恐勝喜… 脾主口… 在志爲思, 思傷脾, 怒勝思… 肺主鼻… 在志爲憂, 憂傷肺, 喜勝憂… 腎主耳… 在志爲恐, 恐傷腎, 思勝恐”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74. “因而喜大虛則腎氣乘矣. 怒則肝氣乘矣. 悲則肺氣乘矣. 恐則脾氣乘矣. 憂則心氣乘矣. 此其道也”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92. “五精所并, 精氣并於心則喜, 并於肺則悲, 并於肝則憂, 并於脾則畏, 并於腎則恐, 是謂五并, 虛而相并者也”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6. “有所墮恐, 喘出於肝, 淫氣害脾, 有所驚恐, 喘出於肺, 淫氣傷心”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感情과 五臟 配屬은 『素問·陰陽應象大論』과 대체로 일치하되, 悲는 心包 및 肺系와 관련이 있으며 驚은 膽과 관계가 있다고 論함으로 써¹³⁾ 『內經』의 學說을 보충하였다.

李中梓는 『醫宗必讀』에서 더 나아가 忡이 腎, 肝, 心, 胃의 네 臟에 속한다고¹⁴⁾ 밝혔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의 내용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怒는 肝과, 喜는 心과, 思는 脾와, 憂는 肺와, 恐은 腎과 각각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아울러 悲는 肺系 및 心包와, 驚은 膽과, 畏는 脾와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感情과 氣機 運行의 關係

『內經』에서 感情이 氣機 運行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靈樞·本神』에서 愁憂하면 氣가 閉塞되어 行하지 않는다고¹⁵⁾ 하고, 『靈樞·壽夭剛柔』에서 憂·恐과 忿怒

가 氣를 傷하게 하고 그 氣는 五臟을 傷하게 하여 五臟에 病을 일으킨다고¹⁶⁾ 하고, 『靈樞·邪氣藏府病形』에서 크게 怒하면 氣가 上行하고 下行하지 않아서 脇下에 쌓이니 肝을 傷한다고¹⁷⁾ 論하였다.

『素問·舉痛論』에서는 感情이 각각 氣機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양상을 論하였는데, 怒는 氣가 上行하게 하고, 喜는 氣가 늘어지게 하고, 悲는 氣가 사그라들게 하고, 恐은 氣가 下行하게 하고, 驚은 氣가 어지럽게 하고, 思는 氣가 멎히게 한다고¹⁸⁾ 하였다.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喜는 氣가 흩어져서 수렴되지 않게 하고, 恐은 精이 怯弱하여 上升하지 못하게 하고, 驚은 정신이 어지러워서 안정되지 않게 하고, 怒는 氣가 上逆하게 하고, 憂는 氣가 모이게 하고, 悲는 氣가 흩어지게 하고, 思는 氣가 멎히게 한다고¹⁹⁾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感情과 氣機 運行의 關係를 論함에 있어서 李梴은 憂는 氣가 모이게 한다고 하여 『素問·舉痛論』의 미비점을 보충하였으며, 喜의 ‘氣緩’을 ‘氣散’으로 고치고

臟腑 感情	『陰陽應象大論』	『玉機眞藏論』	『宣明五氣』(五并)	『經脈別論』	『醫學入門』	『醫宗必讀』
怒	肝	肝氣乘			肝	
喜	心	腎氣乘	心		心	
思	脾				脾	
憂	肺	心氣乘	肝		肺	
恐	腎	脾氣乘	腎	肝, 肺	腎	腎, 肝, 心, 胃
悲		肺氣乘	肺		心包, 肺系	
驚				肺	膽	
畏			脾			

표 1. 感情과 五臟의 關係

13)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p.1391-1392. “喜動心… 恐傷腎… 驚傷膽… 怒傷肝… 憂傷肺… 悲傷心胞及肺系… 思傷脾, 其其結”

14) 李中梓,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573. “肝藏血, 血不足則恐, 肝者, 腎之子也. 水強則膽壯, 水薄則血虛而爲恐矣. 胃爲恐, 胃屬土, 腎屬水, 上邪傷水則爲恐也. 心忡傷思慮則傷神, 神傷則恐懼自失, 心藏神, 神傷則心怯, 所以恐懼自失, 火傷畏水之故按經文論恐, 有腎肝心胃四臟之分, 而肝膽於腎, 乙癸同源者也”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忡傷思慮者則傷神, 神傷則恐懼流淫而不止, 因悲哀動中者, 竭絕而失生. 喜樂者, 神憚散而不藏. 愁憂者 氣閉塞而不行. 盛怒者, 迷惑而不治. 恐懼者, 神蕩憚而不收”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57. “黃帝問於伯高曰, 余聞形氣病之先後, 外內之應, 奈何. 伯高答曰, 風寒傷形, 憂恐忿怒傷氣, 氣傷藏乃病藏, 寒傷形乃應形, 風傷筋脈, 筋脈乃應, 此形氣外內之相應也”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8. “有所墮墜, 惡血留內, 若有所大怒, 氣上而不下, 積於脇下則傷肝”

氣機運行 感情	「學痛論」	『醫學入門』
怒	氣上	氣上逆
喜	氣緩	氣散不斂
思	氣結	其氣結
憂		其氣聚
恐	氣下	精怯不升
悲	氣消	其氣急
驚	氣亂	神亂不定

표 2. 感情과 氣機 運行的 관계

悲의 ‘氣消’를 ‘氣急’으로 고쳐서 그 뜻을 더욱 명확히 하였으며, 恐의 ‘氣下’를 ‘精怯不升’으로 고치고 驚의 ‘氣亂’을 ‘神亂不定’으로 그 뜻을 확대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3. 氣機 運行이 病症에 미치는 영향

『華陀中藏經』에서 氣機의 運行이 五臟을 상하게 하여 여러 가지 病症을 일으킨다고 논하고 있는데, 氣가 위에 머무르면 胸腹痺하여 不能食이 되고, 氣가

아래에 注入되면 腫脚重하여 不能行하고, 왼쪽에 공격하면 좌측이 半身不遂가 되고, 오른쪽에 충격하면 우측이 不仁하고, 舌에 관련되면 不能言하고, 腸에 관련되면 대소변을 못 보고, 氣가 壅滯하여 흠어지지 않으면 통증이 있고, 氣가 흘러서 모이지 않으면 癱痺가 된다고²⁰⁾ 하였다.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氣가 흠어져서 수렴되지 않으면 健忘이 되고, 精怯하여 氣가 상승하지 못하면 下焦가 脹滿하고, 神亂하여 氣가 안정되지 않으면 怔忡 失志가 되고, 氣가 上逆하면 嘔逆하고, 氣가 모이

病症 氣機運行	『華陀中藏經』
上	胸腹痺, 不能食
下	腫脚重, 不能行
左	左不遂
右	右不仁
舌	不能言
腸	不能溺
壅滯	痛
散亂	癱

표 3. 『華陀中藏經』의 氣機 運行과 病症의 관계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46. “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寒則氣收 見則氣泄 驚則氣亂 勞則氣耗 思則氣結 九氣不同 何病之生”

19)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p.1391-1392. “喜動心, 氣散不斂… 恐傷腎, 精怯不升… 驚傷膽, 神亂不定… 怒傷肝, 氣上逆… 憂傷肺, 其氣聚… 悲傷心胞及肺系, 其氣急… 思傷脾, 其氣結”

20) 華陀 撰. 孫星衍 校. 華陀中藏經. 발행처 미상(중국). 自由出版社. 발행년도 미상. p.28. “氣痺者, 愁思喜怒, 過則氣結於上, 久而不消則傷肺, 傷氣則生氣漸衰, 而邪氣愈勝, 留於上則胸腹痺, 而不能食, 注於下則腫脚重而不能行, 攻於左則左不遂, 衝於右則右不仁, 貫於舌則不能言, 遺於腸則不能溺, 壅而不散則痛, 流而不聚則癱, 眞經既損, 難以醫治, 邪氣不勝, 易爲痊愈, 其脈右手寸口, 沈而遲澁者是也. 宜節憂思以養氣, 愼怒以全眞, 最爲良矣”

病症	『醫學入門』
氣機運行	
上逆(怒)	嘔逆
下行(恐)	下焦脹滿
氣散(喜)	健忘
氣亂(驚)	怔忡, 失志
氣結(思)	痞滿
氣聚(憂)	喘促, 噎膈
氣急(悲)	狂

표 4. 『醫學入門』의 氣機 運行과 病症의 관계

면 喘促, 噎膈이 되고, 氣가急하면 狂이 되고, 기가 맏지면 痞滿이 된다고²¹⁾ 하였다. 이는 李梴이 感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운의 변화로 유발된 病症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 <표 4.>와 같다.

『華陀中藏經』에서는 氣機 運行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을 위주로 病症을 제시한데 반하여, 『醫學入門』에서는 氣機의 변화를 일으킨 感情이 소속된 臟腑의 病症을 제시한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 病因으로서의 感情

『內經』에서 感情이 五臟을 傷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靈樞·口問篇』에서 온갖 病이 風雨寒暑와 陰陽喜怒와 飲食居處에서 생긴다고²²⁾ 논함으로써 內傷病의 발생에 있어서 感情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感情을 陰陽으로 大別하여 暴怒는 陰氣를 傷하고 暴喜는 陽氣를 傷할 수 있다고²³⁾ 구분하였다. 한편 『醫學入門』에서는 怒, 憂,

悲, 思는 邪氣가 鬱結하게 하여 有餘한 實證이 주로 나타나며, 喜, 恐, 驚은 眞元이 耗散하게 하여 虛證이 주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陰陽應象大論』에서 感情을 ‘陰陽’으로 구분한 것을 ‘虛實’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靈樞·百病始生』에서 喜·怒가 조절되지 않으면 五臟을 傷하니 五臟이 傷하면 病이 陰에서 起因한다²⁴⁾고論하였고, 특히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感情에 따라서 傷하는 五臟을 제시하였는데, 怒는 肝을 傷하고 喜는 心을 傷하고 思는 脾를 傷하고 憂는 肺를 傷하고 恐은 腎을 傷한다고²⁵⁾論하였다.

劉完素는 『素問玄機原病式』에서 喜는 心火의 감정으로 喜가 지극하면 웃는다고²⁶⁾論하였는데 笑病이

21)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p.1391-1392. “喜動心, 氣散不斂, 過則健忘… 恐傷腎, 精怯不升, 過則下焦脹滿… 驚傷膽, 神亂不定, 過則怔忡失志… 怒傷肝, 氣上逆, 過則嘔逆… 憂傷肺, 其氣聚, 過則喘促… 噎膈者… 悲傷心胞及肺系, 其氣急, 過則爲狂者… 思傷脾, 其氣結, 過則痞滿”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58. “夫百病之始生也, 皆生于風雨寒暑, 陰陽喜怒, 飲食居處, 大驚卒恐則血氣分離, 陰陽破散, 經脈厥絕, 脈道不通, 陰陽相逆, 衛氣稽留, 經脈虛空, 血氣不次, 乃失其常”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 “喜怒傷氣, 寒暑傷形, 暴怒傷陰, 暴喜傷陽, 厥氣上行, 滿脈去形, 喜怒不節, 寒暑過度, 生乃不固”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86. “喜怒不節則傷藏, 藏傷則病起於陰也”

2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23-24. “東方生風… 在聲爲呼, 在變動爲握, 在志爲怒, 怒傷肝, 悲勝怒… 南方生熱… 在聲爲笑, 在變動爲憂, 在志爲喜, 喜傷心, 恐勝喜… 中央生濕… 在聲爲歌, 在變動爲噦, 在志爲思, 思傷脾, 怒勝思… 西方生燥… 在聲爲哭, 在變動爲咳, 在志爲憂, 憂傷肺, 喜勝憂… 北方生寒… 在聲爲呻, 在變動爲栗, 在志爲恐, 恐傷腎, 思勝恐”

26) 劉完素 著. 胡國臣 主編. 劉完素醫學全書·素問玄機原病式.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7. “笑, 蕃茂鮮淑, 舒榮彰顯, 火之化也. 故喜爲心火之志, 喜極而笑者, 猶燐燐火喜而鳴, 笑之象也. 故病笑者, 火之甚, 或心本不喜, 因侮戴而笑者, 屬謂之冷笑. 由是違己心, 則喜笑涉人, 非道而伐之, 便慚然失志, 或以輕手擾人頸腋腹脇股膕足趺, 令人癢而笑者, 由動亂擾撓火之用, 靜順清蜜水之化也. 皮膚彰顯之分屬火, 嫩薄隱藏之分屬水, 以火用撓其水分, 使人慚然失志而

心火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5. 感情이 유발하는 病症

『內經』에서 感情이 유발하는 病症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素問·生氣通天論篇』에서 大怒하면 薄厥을 발생하게 한다고²⁷⁾ 論하였고, 『素問·病能論』에서 憂·思는 心에 痺聚를 일으킨다고²⁸⁾ 함으로써 感情이 유발하는 病症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素問·舉痛論』에서는 感情이 氣機 運行的 변화를 일으키며 그로 인해 해당 病症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怒는 氣逆을 유발하여 嘔血, 飧泄의 病症을 일으키며, 恐은 精却 上焦閉를 유발하여 下焦脹의 病症을 일으키며, 驚은 氣亂을 유발하여 心神이 안정

되지 못하게 한다고”²⁹⁾ 論함으로써 怒, 恐, 驚이 유발하는 病症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靈樞·本神』에서 怵惕 思慮는 恐懼自失, 破腠脫肉의 病症을 유발하며, 愁憂는 惋亂, 四肢不舉의 病症을 유발하며, 悲哀는 狂忘不精 陰縮 攣筋 兩脇骨不舉의 病症을 유발하며, 喜樂은 狂, 皮革焦의 병증을 유발하며, 盛怒는 喜忘前言 腰脊不可以俛仰屈伸의 병증을 유발하며 恐懼는 骨痠痿厥 精時自下의 病症을 유발한다고³⁰⁾ 論함으로써 思, 憂, 悲, 喜, 怒, 恐이 유발하는 病症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張從政은 『儒門事親』에서 『素問·舉痛論』과 『靈樞·本神』의 내용을 바탕으로 怒氣는 嘔血 飧泄 煎厥 薄厥 陽厥 胸滿脅痛 食不下 喘渴煩心 消痺 肥氣 目暴盲 耳暴閉 筋解 疝癰의 病症을 유발하며, 喜氣는 笑不休

五臟病症 感情(五臟)	「舉痛論」	「本神」	『儒門事親』	『醫學入門』
怒	嘔血, 飧泄	喜忘其前言 腰脊不可以俛仰屈伸	嘔血, 飧泄, 煎厥, 薄厥, 陽厥, 胸滿脅痛, 食則氣逆而不下, 喘渴煩心, 消痺, 肥氣, 目暴盲, 耳暴閉, 筋解, 發于外爲疝癰	嘔逆
喜		狂者 意不存人 皮革焦	笑不休, 毛髮焦, 內病, 陽氣不收, 甚則爲狂	健忘
思		恐懼自失 破腠脫肉	不眠, 嗜臥, 昏瞶, 中痞, 三焦閉塞, 咽噎不利, 膽痺口苦, 筋痿, 白淫, 得後與氣 則快然如衰, 不嗜食	痞滿
憂		惋亂 四肢不舉		喘促, 噎膈
恐	下焦脹	骨痠痿厥 精時自下	破腠脫肉, 骨痠痿厥, 暴下綠水, 面熱膚急, 陰痿, 懼而脫頤	下焦脹滿
悲		狂忘不精 不正當 人陰縮 而攣筋 兩脇骨不舉	陰縮, 筋攣, 肌痺, 脈痿, 男爲數洩血, 女爲血崩, 酸鼻辛頰, 目昏, 少氣不足以息, 泣則臂麻	狂
驚	神無所歸, 慮無所定	恐懼自失 破腠脫肉	潮涎, 目冥, 口吐沫, 癲癇, 不省人事, 僵仆, 久則爲痛痺	神亂不定, 怔忡失志

표 5. 感情이 유발하는 五臟病症

癢, 則水衰火旺而爲笑, 以手自撓而不笑者, 不羞不癢故也. 然羞慚而癢者, 心火之火, 人失信則羞慚者, 水衰火實故也. 志與信者, 腎水之化, 但癢而不羞, 羞而不癢, 皆不能爲笑者, 化微不能變動故也”

2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6. “陽氣者, 大怒則形氣絕, 而血菀於上, 使人薄厥”

2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62. “淫氣憂思, 痺聚在心”

2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46. “怒則氣逆, 甚則嘔血及飧泄… 恐則精却, 却則上焦閉, 閉則氣還, 還則下焦脹, 故氣不行矣… 驚則心無所倚, 神無所歸, 慮無所定, 故氣亂矣”

3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8. “心怵惕思慮則傷神, 神傷則恐懼自失, 破腠脫肉, 毛悴色夭, 死於冬. 脾愁憂而不解則傷意, 意傷則惋亂, 四肢不舉, 毛悴色夭, 死於春. 肝悲哀動中則傷魂, 魂傷則狂忘不精,

毛髮焦 內病 陽氣不收 狂의 病症을 유발하며, 悲氣는 陰縮 筋攣 肌痺 脈痿 數澀血 血崩 酸鼻辛頰 目昏 少氣不足以息 臂麻의 病症을 유발하며, 恐氣는 破膈脫肉 骨酸痿厥 暴下綠水 面熱膚急 陰痿 懼 脫頤의 病症을 유발하며, 驚氣는 潮涎 目竅 口呿志 癲癩 不省人事 僵仆 痛痺의 病症을 유발하며, 思氣는 不眠 嗜臥 昏脊 中痞 三焦閉塞 咽隘不利 膽痺口苦 筋痿 白淫 得後與氣 則快然如衰 不嗜食의 病症을 유발한다³¹⁾ 論함으로써 『內經』에서 제시하지 못한 感情이 유발하는 病症을 보충하였다.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喜는 心을 傷하여 健忘의 病症을 유발하며, 恐은 腎을 傷하여 精怯不升으로 인해 下焦脹滿의 病症을 유발하며, 驚은 膽을 傷하여 怔忡 失志의 病症을 유발하며, 怒는 肝을 傷하여 嘔逆의 病症을 유발하며, 憂는 肺를 傷하여 喘促 噎膈의 病症을 유발하며 悲는 心胞와 肺系를 傷하여 狂症을 유발하며, 思는 脾를 傷하여 痞滿의 病症을 유발한다고³²⁾ 論함으로써 感情과 배속되는 臟腑와 밀접한 病症을 대표적으로 제시하였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不精則不正當，人陰縮而筋攣，兩脇骨不舉，毛悴色夭，死於秋，肺喜樂無極則傷魄，魄傷則狂，狂者，意不存人，皮革焦，毛悴色夭，死於夏．腎盛怒而不止則傷志，志傷則喜忘其前言，腰脊不可以俛仰屈伸，毛悴色夭，死於季夏．恐懼而不解則傷精，精傷則骨酸痿厥，精時自下”

31) 張從政 著. 胡國臣 主編. 張從政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56-57. “『靈樞』論神意魂魄志精所主之病，然無寒暑驚勞四證，余以是推而廣之. 怒氣所至，為嘔血，為飧泄，為煎厥，為薄厥，為陽厥，為胸滿脊痛，食則氣逆而不下，為喘渴煩心，為消痺，為肥氣，為目暴盲，耳暴閉，筋解，發于外為疽癰，喜氣所至，為笑不休，為毛髮焦，為內病，為陽氣不收，甚則為狂. 悲氣所至，為陰縮，為筋攣，為肌痺，為脈痿，男為數澀血，女為血崩，為酸鼻辛頰，為目昏，為少氣不足以息，為泣則臂麻. 恐氣所至，為破膈脫肉，為骨酸痿厥，為暴下綠水，為面熱膚急，為陰痿，為懼而脫頤. 驚氣所至，為潮涎，為目竅，為口呿志為癲癩，為不省人事，為僵仆，久則為痛痺… 思氣所至，為不眠，為嗜臥，為昏脊，為中痞，三焦閉塞，為咽隘不利，為膽痺口苦，為筋痿，為白淫，為得後與氣則快然如衰，為不嗜食”

3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p.1391-1392. “喜動心，氣散不斂，過則健忘… 恐傷腎，精怯不升，過則下焦脹滿… 驚傷膽，神亂不定，過則怔忡失志… 怒傷肝，氣上逆，過則嘔逆… 憂傷肺，其氣聚，過則喘促… 噎膈者… 悲傷心胞及肺系，其氣急，過則為狂者… 思傷脾，其氣結，過則痞滿”

<표 5.>를 살펴보면, 『靈樞·本神』의 내용은 五臟과 感情의 상관관계를 論하고 있지만 五行의 속성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素問·舉痛論』의 怒, 恐, 驚에 대해서는 관련 病症을 제시하고 있지만 喜, 思, 憂, 悲에 대한 病症은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張從政은 『儒門事親』에서 「舉痛論」과 「本神」에 열거된 내용에 근거하여 대체로 각 臟에 밀접한 病症으로써 感情과 관련된 病症을 보충하였다.

『醫學入門』에서는 「舉痛論」에서 열거한 病症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각 臟의 病症으로써 感情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病症을 제시하였다. 다만 『醫學入門』에서는 「本神」의 내용을 참고하지는 않았는데, 그 까닭은 아마도 「本神」에서는 五臟과 感情의 배속이 일반적인 學설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本神」에서 제시한 五臟과 感情의 配屬은 비록 「舉痛論」이나 『儒門事親』, 『醫學入門』과 일치하지 않지만, 感情이 유발하는 病症은 약간의 유사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喜로 유발되는 狂症과 恐으로 유발되는 骨酸痿厥의 病症은 동일하다.

또한 劉完素는 『素問玄機原病式』에서 感情이 모두 火와 熱로 작용하여 火熱의 病症을 일으킨다고³³⁾ 論하였다. 이는 感情이 특정 臟腑의 病症을 유발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火熱’의 속성에 해당하는 病症을 두루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발명한 것이다.

33) 劉完素 著. 胡國臣 主編. 劉完素醫學全書·素問玄機原病式.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7. “悲，肺金之志，金木能令燥者，火也. 心火主於熱，喜痛，故悲痛苦惱者，心神煩熱躁亂，而非清淨所以悲哭，而五液俱出者，火熱亢極，而反兼水化制之故也. 夫五臟者，肝心脾肺腎，五臟之志者，喜怒悲思恐，弱志過度，則勞傷本臟. 凡五志所傷皆熱，六欲者，眼耳鼻舌身意，七情者，喜怒哀樂愛惡欲，肝之所傷，則皆屬火熱，所謂陽動陰靜. 故形神勞則躁不寧，靜則清平，是故，上善若水，下愚如火. 先聖曰，六欲七情為道之患，屬火故也. 如中風偏枯者，由心火暴甚，而水衰不能制之，則火能剋金，金不能剋木，則肝木自甚，而兼於火熱，則卒暴僵仆，多因五志七情過度，而卒病也. 又如酒醉而熱，則五志七情競起，故經曰，戰慄驚惑悲笑譫妄，歌唱罵詈癲狂皆為熱，故熱甚癲狂者，皆此證也”

6. 氣機 運行的 變化가 感情에 미치는 영향

陰陽의 氣가 교류하지 못하고 上이나 下에만 있거나, 陰陽의 氣가 조화롭지 못하고 부딪치면 怒나 恐을 일으킬 수 있다. 가령 『素問·調經論』에서 血이 위에서 병합되고 氣가 아래에 병합되면 怒하기를 잘하고, 血이 아래에서 병합되고 氣가 위에서 병합되면 어지럽고 잇기를 잘한다고³⁴⁾ 하였으며, 『素問·脈解篇』에서 陽氣가 陰氣와 서로 부딪치면 水와 火가 서로 미워하므로 惕然히 驚한다고 하였고, 陽氣가 잘 나오지 않아서 肝氣가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怒하기를 잘한다고 하였고, 陰氣가 적고 陽氣가 들어가서 陰陽이 서로 부딪치면 恐하길 잘한다고³⁵⁾ 하였다.

7. 疾病이 感情에 미치는 영향

한편 感情이 病因으로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疾病이 感情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素問·藏氣法時論』에서 肝病은 善怒 善恐을 유발

하며, 腎病은 意不樂을 유발한다고³⁶⁾ 하였고, 『素問·宣明五氣』에서 胃는 恐을 유발하며, 膽은 怒를 유발한다고³⁷⁾ 하였다. 『靈樞·經脈』에서 心包의 是動病은 喜笑不休를 유발하며, 腎氣不足은 善恐을 유발한다고³⁸⁾라고 밝힘으로써 臟腑의 病이 感情의 변화를 유발함을 발명하였다.

『靈樞·本神篇』에서 더 나아가 肝氣가 虛하면 恐을, 實하면 怒를 유발하며, 心氣가 虛하면 悲를, 實하면 笑不休를 유발한다고³⁹⁾ 하여 一臟에도 그 虛實에 따라 感情의 변화가 각각 다름을 발명하였다.

『素問·風論』에서 心風은 善怒嚇하고 肝風은 善悲 善怒를 유발한다고⁴⁰⁾ 하였으며, 『素問·病能論』에서 陽厥은 善怒를 유발한다고⁴¹⁾ 하였으며, 『素問·脈解篇』에서 煎厥이 善怒를 유발한다고⁴²⁾ 하였으며, 『靈樞·根結篇』에서 厥陰 闕이 잘못되면 悲를 잘 유발한다고⁴³⁾ 하였으며, 『素問·繆刺篇』에서 足少陰絡의 病은 善怒를 유발한다고⁴⁴⁾ 하였으며, 『素問·痺論』에서 心痺는 恐을 유발하고 肝痺는 驚을 유발한다고⁴⁵⁾ 밝힘으로써 특정 病症은 感情의 변화를 유발함을 발명하였다.

五臟病 出典	肝病	心病	脾病	肺病	腎病	膽病	胃病	心包病
「藏氣法時論」	善怒 善恐				意不樂			
「宣明五氣」						怒	恐	
「風論」	善悲 善怒	善怒嚇						
「病能論」								
「經脈」					善恐 心惕揚			喜笑不休
『難經』	善怒	喜笑	善思	悲愁不樂 欲哭	善恐			

표 6. 疾病이 感情에 미치는 영향

3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216-218. “神有餘, 則笑不休, 神不足則悲... 血有餘則怒, 不足則恐... 血并於上, 氣并於下, 心煩惋善怒, 血并於下, 氣并於上, 亂而喜忘”

3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184-185. “(陽明)所謂甚則厥, 惡人與火, 聞木音則惕然而驚者, 陽氣與陰氣相薄, 水火相惡, 故惕然而驚也... (少陽)所謂少氣善怒者, 陽氣不治, 陽氣不治則陽氣不得出, 肝氣當治而未得, 故善怒. 善怒者, 名曰煎厥, 所謂恐如人將捕之者, 秋氣萬物未有畢去, 陰氣少, 陽氣入, 陰陽相薄, 故恐也”

3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9. “肝病者, 兩脇下痛引少腹, 令人善怒, 虛則目眩無所見, 耳無所聞, 善恐如人將補之... 腎病者, 腹大脛腫, 喘欬身重, 寢汗出憎風, 虛則胸中痛, 大腹小腹痛, 清厥意不樂, 取其經, 少陰太陽血者”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92. “五氣所病, 心爲噫, 肺爲欬, 肝爲語, 脾爲吞, 腎爲欠爲噦, 胃爲氣逆爲噦爲恐, 大腸小腸爲泄, 下焦溢爲水, 膀胱不利爲癃, 不約爲遺溺, 膽爲怒, 是謂五病”

3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또한 『難經』에서는 肝積은 善怒를, 心積은 喜笑를, 脾積은 善思를, 肺積은 悲愁不樂 欲哭을, 腎積은 善恐을 유발한다고⁴⁶⁾ 밝혔다.

위의 내용을 臟腑 별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肝病은 주로 怒, 恐, 悲를 유발하고, 心病은 주로 喜(笑), 怒를 유발하고, 脾病은 思를 유발하고, 肺病은 悲를 유발하고, 腎病과 胃病은 恐을 유발하고, 膽病은 怒를 유발하고, 心包病은 喜를 유발함을 알 수 있다.

8. 感情으로 유발된 疾病의 치료

感情으로 인한 病症과 病症으로 인한 感情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潘楫은 『醫燈續焰』에서 다음과 같이 概括하였다.

- pp.81-82. “(心主手厥陰心包之脈)是動則病手心熱, 臂肘掣急, 腋腫, 甚則胸脇支滿, 心中澹澹大動, 面赤, 目黃, 喜笑不休…(腎足少陰之脈)氣不足則善恐, 心惕如人將捕之”
- 3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69. “肝藏血, 血舍魂, 肝氣虛則恐, 實則怒… 心藏脈, 脈舍神, 心氣虛則悲, 實則笑不休”
- 4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57. “心風之狀, 多汗惡風, 焦絕善怒嚇, 赤色, 病甚則言不可快, 診在口, 其色赤, 肝風之狀, 多汗惡風, 善悲, 色微蒼, 噎乾善怒, 時憎女子, 診在目下, 其色青”
- 4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73. “帝曰, 有病怒狂者, 此病安生. 岐伯曰, 生於陽也. 帝曰, 陽何以使人狂. 岐伯曰, 陽氣者, 因暴折而難決, 故善怒也, 病名曰陽厥”
- 4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85. “肝氣當治而未得, 故善怒, 善怒者, 名曰煎厥”
- 4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50. “厥陰爲闔, 闔折即氣絕而喜悲”
- 4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24. “邪客于足少陰之絡, 令人無故善怒, 氣上走贛上”
- 4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62. “心痺者, 脈不通, 煩則心下鼓, 暴上氣而喘, 噎干善噫, 厥氣上則恐… 肝痺, 夜臥則驚” “邪客于足少陰之絡, 令人無故善怒, 氣上走贛上” “邪客于足少陰之絡, 令人無故善怒, 氣上走贛上”
- 46) 滑壽 著. 윤창렬, 이남구, 김선호 편역. 難經本義.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p.90-95. “假令得肝脈, 其外證, 善潔, 面青, 善怒… 假令得心脈, 其外證, 面赤, 口乾, 喜笑… 假令得脾脈, 其外證, 面黃, 善噫, 善思, 善味… 假令得肺脈, 其外證, 面白, 善噎, 悲愁不樂, 欲哭 …… 假令得腎脈, 其外證, 面黑, 善恐欠”

疾病이 感情으로 인하여 생기는 경우 感情을 다스리니, 가령 喜로써 悲를 이기게 하고 悲로써 怒를 이기게 하는 따위와 같으며, 感情이 疾病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그 病을 다스리니, 가령 平肝하면 怒가 풀리고, 溫膽하면 驚悸가 진정되는 따위와 같다.⁴⁷⁾

1) 感情의 相剋으로 치료

張從政은 『儒門事親』에서 感情 치료에 있어서 五志相勝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가령 木의 怒가 肝病을 유발한 경우 金의 悲로써 肝病을 치료한다고⁴⁸⁾ 하였다. 이는 『素問·陰陽應象大論』의 五志相剋 理論을 부연하여 感情이 유발하는 五臟의 病症을 치료하는 방법을 논한 것이다.

2) 臟腑 補瀉로 치료

陳士鐸은 『石室秘錄』에서 怒가 肝을 傷하여 鬱症이 되면 救肝開鬱湯이 마땅하다고⁴⁹⁾ 하고, 또한 膽怯하여 사람을 보기를 꺼려하는 경우에 助勇丹이 마땅하다고⁵⁰⁾ 발명함으로써 怒傷肝과 膽怯의 治法을

- 47) 潘楫. 醫燈續焰.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20. “病生于情者治其情, 如喜勝悲, 悲勝怒之類, 情生于病者治其病, 如平肝怒解, 溫膽悸寧之類”
- 48) 張從政 著. 胡國臣 主編. 張從政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56-57. “凡此九者, 『內經』有治法, 但以五行相勝之理治之, 夫怒傷肝, 肝屬木, 怒則氣並於肝, 而脾土受邪, 木太過則肝亦自病. 喜傷心, 心屬火, 喜則氣並於心, 而肺金受邪, 火太過則心亦自病. 悲傷肺, 肺屬金, 悲則氣並於肺, 而肝木受邪, 金太過則肺亦自病. 恐傷腎, 腎屬水, 恐則氣並於腎, 而心火受邪, 水太過則腎亦自病. 思傷脾, 脾屬土, 思則氣並於脾, 而腎水受邪, 土太過則脾亦自病”
- 49) 陳士鐸. 胡國臣 主編. 陳士鐸醫學全書·石室秘錄.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29. “凡人有鬱鬱不樂, 忽然氣塞而不能言, 苟治之不得法, 則死矣. 夫鬱症未有不傷肝者也, 傷肝又可伐肝乎. 伐肝是愈助其鬱, 鬱且不能解, 又何以救死於頃刻哉. 方用救肝開鬱湯, 白芍二兩, 柴胡一錢, 甘草一錢, 白芥子三錢, 白朮五錢, 當歸五錢, 陳皮二錢, 茯苓五錢, 水煎服 一劑而聲出, 再劑而神安, 三劑而鬱氣盡解. 此方妙在用白芍之多至二兩, 則直入肝經, 以益其匱乏之氣, 自然血生而火熄, 又用白朮, 當歸健土以生血, 柴胡以解鬱, 甘草以和中, 白芥子以消膜隔之痰. 又妙在多用茯苓, 使鬱氣與痰涎盡入於膀胱之中, 而消弭於無形也, 倘人有鬱氣不解, 奄奄黃瘦, 亦急以吾方治之, 何至變生不測哉”
- 50) 陳士鐸. 胡國臣 主編. 陳士鐸醫學全書·石室秘錄.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39. “凡人膽怯不敢見人者, 少陽

제시하였다.

李中梓는 『醫宗必讀』에서 恐이 腎, 肝, 心, 胃의 네 臟에 속하므로 枸杞 遠志 地黃 山茱萸 茯苓 牛膝 杜仲의 厚味로 腎을 補하고, 棗仁 山茱萸 牡丹皮 白芍藥 甘草 龍齒로 養陰하고, 四君子湯에 茯苓을 두 배로 사용하여 胃氣를 補하고, 朱砂 琥珀 金銀箔 犀角 龍齒로 心神을 안정하게 한다고⁵¹⁾ 밝히면서 人參散⁵²⁾, 茯苓散⁵³⁾, 補膽防風湯⁵⁴⁾을 제시하였다.

3) 氣機運行的 조절로써 치료

한편 李梴은 感情이 氣機 運行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病症을 유발하며, 그에 따른 處方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醫學入門』에서 “喜는 氣散하여 健忘을 유발하니 歸脾湯이 마땅하고, 恐은 氣下하여 下焦脹滿을 유발하니 三和散, 補中益氣湯이 마땅하고, 驚은 氣亂하여 怔忡, 失志를 유발하니 妙香散, 十味溫膽湯이 마땅한데 모두 虛證에 속하며, 怒는 氣上하여 嘔逆을 유발하니 枳梗二陳湯, 紺珠正氣天香湯, 柴陳湯이 마땅하고, 憂는 氣急하여 喘促을 유발하니 蘇子降

膽經虛也, 而所以致少陽膽經之虛者, 肝木之衰也, 而肝木之衰, 又因腎水之不足, 法當補腎以生肝木, 方用熟地一兩, 山茱萸四錢, 芍藥五錢, 當歸五錢, 柴胡一錢, 茯苓五錢, 白芥子一錢, 生棗仁一錢, 肉桂一錢, 水煎服([批]助勇丹). 此方之妙, 補腎之中用補肝之品, 尤妙再去補心, 使心不取給於肝膽之血, 則膽之汁有餘, 而怯形可去. 又妙在用肉桂以入肝, 如人得勇往之人, 自然頃刻膽壯矣. 此治腑實有妙理, 人知之乎”

- 51) 李中梓.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573. “恐之一證, 屬腎之本志, 而旁及於他臟, 治法則有別焉. 治腎傷者, 宜味厚, 枸杞, 遠志, 地黃, 山茱萸, 茯苓, 牛膝, 杜仲之屬, 治肝膽者, 宜養陰. 棗仁, 山茱萸, 牡丹皮, 白芍藥, 甘草, 龍齒之屬. 治陽明者, 壯其氣, 四君子湯倍用茯苓, 治心君者, 鎮其神, 朱砂, 琥珀, 金銀箔, 犀角, 龍齒之屬”
- 52) 李中梓.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573. “人參散, 治肝腎虛而多恐, 不能獨臥, 人參, 枳殼, 五味子, 桂心, 甘菊花, 茯苓, 山茱萸, 枸杞子(各七錢半), 柏子仁(一兩), 熟地黃(一兩), 上爲細末, 每服二錢, 溫酒調下”
- 53) 李中梓.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573. “茯苓散, 治膽胃不足, 心神恐怯, 茯苓(一兩), 遠志, 防風, 細辛, 白朮, 前胡, 人參, 桂心, 熟地黃, 甘菊花, 各七錢半, 枳殼(半兩), 上爲粗末, 每服三錢, 水一鍾, 薑三片, 煎至六分, 溫服”
- 54) 李中梓.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573. “補膽防風湯, 治膽虛目暗眩冒, 夢見聞訟, 恐懼面色變, 防風(一錢), 人參(七分), 細辛, 芎藭, 甘草, 茯苓, 獨活, 前胡(各八分), 爲末, 每服四錢, 水鍾半, 棗二枚, 煎八分服”

氣湯, 分氣紫蘇飲, 五膈寬中散이 마땅하고, 悲는 氣消하여 狂을 유발하니 枳殼煮散, 升陽順氣湯이 마땅하고, 思는 氣結하여 痞滿을 유발하니 退熱清氣湯, 溫膽湯, 木香化滯湯, 木香枳朮丸이 마땅한데 모두 實證에 속한다고⁵⁵⁾ 하였다.

①喜(虛證)→氣散→健忘: 歸脾湯

歸脾湯은 思慮의 과도로 心脾를 傷해서 발생하는 怔忡 健忘 驚悸 盜汗 發熱 體倦 食少 不眠 등을 주로 다스리는데⁵⁶⁾, 當歸, 龍眼肉, 酸棗仁, 遠志, 人參, 黃芪, 白朮, 茯苓 各一錢, 木香 五分, 甘草 三分으로 이루어져 있다.⁵⁷⁾ 이로써 喜의 과다로 인해 氣가 흩어져서 수렴되지 않아서 발생한 健忘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恐(虛證)→氣下→下焦脹滿: 三和散, 補中益氣湯

三和散은 感情으로 인해 氣結하여 五臟과 脾胃가 不和하여 心腹脹急한 증상을 다스리는데, 川芎 一錢, 沈香, 蘇葉, 大腹皮, 羌活, 木瓜, 唐木香, 白朮 各五分, 檳榔, 陳皮, 甘草灸 各三分으로 이루어져 있다.⁵⁸⁾ 『東醫寶鑑』에는 氣의 鬱滯로 인해 或脹 或痛을 다스린다고⁵⁹⁾ 되어 있는데, 이로써 恐의 과다로 인해 氣가 下行하지 上升하지 못하여 발생한 下焦脹滿 중에 氣鬱이 더 많을 때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補中益氣湯은 煩勞 內傷으로 인해 氣虛하여 元氣를 끌어올리지 못하여 清陽이 下陷하고 中氣가 不足한 증상을 다스리는데, 黃芪(蜜炙) 一錢半, 人參 甘草灸 各一錢, 白朮(土炒) 陳皮(留白) 當歸 各五分, 升麻, 柴胡 各三分으로 이루어져 있다.⁶⁰⁾ 이로써 補中益氣

- 55)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p.1391-1392. “喜動心, 氣散不斂, 過則健忘, 歸脾湯, 恐傷腎, 精怯不升, 過則下焦脹滿, 三和散, 補中益氣湯, 驚傷膽, 神亂不定, 過則怔忡失志, 妙香散, 十味溫膽湯. 此三者, 皆令真元耗散, 多見不足之證... 怒傷肝, 氣上逆, 過則嘔逆, 枳梗二陳湯, 紺珠正氣天香湯. 熱者柴陳湯, 憂傷肺, 其氣聚, 過則喘促. 蘇子降氣湯, 分氣紫蘇飲. 噎膈者, 暫用五膈寬中散. 悲傷心胞及肺系, 其氣急, 過則爲狂者, 枳殼煮散, 升陽順氣湯. 思傷脾, 其氣結, 過則痞滿, 退熱清氣湯, 溫膽湯, 木香化滯湯, 木香枳朮丸. 此四者, 皆令邪氣鬱結, 多見有餘之證”
- 56)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2202.
- 57)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2202.
- 58) 吳儀洛 著. 裘沛然 編. 成方切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 59) 동의문헌연구실 역. 신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민문화사. 2007. p.2114.

湯도 恐의 과다로 인해 氣가 下行하지 上升하지 못하여 발생한 下焦脹滿 중에 氣虛가 더 많을 때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驚(虛證)→氣亂→怔忡, 失志: 妙香散, 十味溫膽湯
妙香散은 男婦의 心氣不足으로 精神이 恍惚하고 虛煩, 少睡, 盜汗을 다스리는데 常服하면 氣血을 補益하고 心神을 편안하게 하며⁶¹⁾ 麝香一錢, 山藥, 茯苓, 茯神, 黃芪, 遠志 各一兩, 人參, 甘草, 桔梗 各五錢, 木香 二錢半, 辰砂 三錢으로 이루어져 있다.⁶²⁾ 이로써 驚의 과다로 인해 氣가 어지러워서 발생한 怔忡, 失志 중에 氣鬱이 더 많을 때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十味溫膽湯은 夢遺와 驚惕을 다스리는데 陳皮, 半夏, 枳實 各九分, 人參, 白茯苓 各五分, 遠志, 熟地, 酸棗仁, 甘草 各三分半, 五味子 九箇로 이루어져 있다.⁶³⁾ 이로써 驚의 과다로 인해 氣가 어지러워서 발생한 怔忡, 失志 중에 氣虛가 더 많을 때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怒(實證)→氣上→嘔逆: 枳梗二陳湯, 紺珠正氣天香湯, 柴陳湯

枳梗二陳湯은 胸膈을 편안하게 하고 痰氣를 化하고 痞滿을 다스리는데 二陳湯에 枳殼, 桔梗을 더한 것으로⁶⁴⁾ 半夏(薑制) 二錢, 陳皮(去白), 茯苓 一錢, 甘草 五分으로 이루어져 있다.⁶⁵⁾ 이로써 怒의 과다로 인해 氣가 上行하여 발생한 嘔逆 중에 氣滯와 痰이 동반할 때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紺珠正氣天香湯은 婦人의 諸氣로 作痛하여 혹 心胸이나 혹 脅肋을 공격하며 腹中이 結塊하고 發渴 刺痛하고 月水가 不調하거나 혹 眩暈 嘔吐하고 往來寒熱을 다리는데⁶⁶⁾ 烏藥一錢半, 香附 六錢, 陳皮, 紫蘇, 乾薑 各六分으로 이루어져 있다.⁶⁷⁾ 이로써 怒의 과

다로 인해 氣가 上行하여 발생한 嘔逆 중에 血分에 관련하여 寒熱往來와 痛症이 동반할 때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柴陳湯은 痰熱로 胸脅이 不利하는 것을 다스리는데 小柴胡湯과 二陳湯을 合한 것이다.⁶⁸⁾ 이로써 怒의 과다로 인해 氣가 上行하여 발생한 嘔逆 중에 氣鬱로 인한 發熱과 痰이 동반할 때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憂(實證)→氣急→喘促: 蘇子降氣湯, 分氣紫蘇飲, 五膈寬中散

蘇子降氣湯은 虛陽이 上攻하여 氣가 升降하지 않아서 上盛下虛로 痰涎이 壅盛하는 증상을 다스리는데⁶⁹⁾ 蘇子, 半夏麴 各五分, 甘草, 前胡, 當歸, 厚朴 各二分, 肉桂, 陳皮 各三分으로 이루어져 있다.⁷⁰⁾ 이로써 憂의 과다로 인해 氣가 急하여 발생한 喘促 중에 痰涎과 表證이 兼할 때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分氣紫蘇飲은 남자나 婦人의 脾胃不和로 胸膈이 噎塞하고 腹脅이 疼痛하고 氣促喘急하고 心下가 脹悶하고 飲食을 생각하지 않고 嘔逆이 그치지 않는 症狀을 다스리는데⁷¹⁾ 紫蘇一錢六分, 大腹皮, 桑白皮, 甘草, 桔梗, 草菓, 茯苓, 五味子 各二分으로 이루어져 있다.⁷²⁾ 이로써 憂의 과다로 인해 氣가 急하여 발생한 喘促 중에 脾胃不和를 兼할 때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五膈寬中散은 四氣나 感情으로 脾胃를 傷하여 陰陽의 不和로 胸膈이 痞滿하고 停痰氣逆으로 五膈症이 된 것을 다스리는데⁷³⁾ 靑皮, 陳皮, 丁香, 砂仁 各四分, 厚朴, 香附 各一錢半, 甘草五分, 木香 三分, 白豆蔻 二分으로 이루어져 있다.⁷⁴⁾ 이로써 憂의 과다로 인해 氣가 急하여 발생한 喘促 중에 脾胃不和가 심해져서 噎膈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60) 吳儀洛 著, 裘沛然 編. 成方切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61)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2308.

6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2308.

63)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2006.

64)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2225.

65) 吳儀洛 著, 裘沛然 編. 成方切用·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66)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2296.

67)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2296.

68)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1270.

69)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2298.

70)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2298.

71)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2282.

72)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2282.

73)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2307.

74)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2307.

⑥悲(實證)→氣消→狂: 枳殼煮散, 升陽順氣湯

枳殼煮散은 悲·憂로 肝을 傷하여 양쪽 겨드랑이 뼈가 아프고 筋脈이 拘急하고 腰脚이 重滯하고 股脇이 牽痛하고 四肢를 들지 못하고 점차 背脊가 攣急한 증상을 다스리는데⁷⁵⁾ 枳殼, 川芎, 防風, 細辛, 桔梗 各八分, 甘草 四分, 乾葛 三分으로 이루어져 있다.⁷⁶⁾ 이로써 悲의 과다로 인해 氣가 사그라들어 발생한 狂症 중에 脇肋痛이 곁했을 때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升陽順氣湯은 봄에 입맛이 없고 여름에 비록 더위도 오히려 춥고 굶거나 배부름이 일정하지 않아서 腹脇이 滿悶하고 短氣하는 症狀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喜怒가 적절하지 않아서 憂思로 氣結하고 恐懼로 氣下하는 症狀을 다스리는데 즉 補中益氣湯에서 白朮을 빼고 黃柏 草豆蔻 神麩 半夏를 더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⁷⁷⁾ 이로써 悲의 과다로 인해 氣가 사그라들어 발생한 狂症 중에 脾胃 氣虛를 兼했을 때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⑦思(實證)→氣結→痞滿: 退熱清氣湯, 溫膽湯, 木香化滯湯, 木香枳朮丸

退熱清氣湯은 氣逆으로 身熱하고 中脘이 痞滿하는 증상을 다스리는데 柴胡, 橘皮, 茯苓各一錢, 半夏 枳殼 各八分, 香附 七分, 川芎 五分, 砂仁 七粒, 木香 甘草 各三分으로 이루어져 있다.⁷⁸⁾ 이로써 思의 과다로 인해 氣가 맺혀서 발생한 痞滿 중에 發熱이 곁했을 때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溫膽湯은 膽虛 痰熱로 인해 不眠 虛煩 驚悸 口苦 嘔涎을 다스리는데⁷⁹⁾ 半夏 枳實 各一錢, 陳皮一錢, 茯苓 五分半, 甘草 四分, 竹茹 一團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써 思의 과다로 인해 氣가 맺혀서 발생한 痞滿 중에 膽虛, 痰熱이 곁했을 때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木香化滯湯은 憂氣와 濕麪을 먹음으로 인하여 中脘에 맺혀서 腹皮의 속까지 당기면서 아프고 心下가 痞滿하고 飲食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痞氣가 있는 症

狀을 다스리는데 半夏 一錢, 柴胡 蒼朮 各四分, 草豆蔻 五分, 木香, 陳皮, 各三分, 當歸尾 一分, 枳實 二分, 紅花 甘草 各半分으로 이루어져 있다.⁸⁰⁾ 이로써 思의 과다로 인해 氣가 맺혀서 발생한 痞滿 중에 濕을 발생하는 麵類를 많이 먹었을 때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木香枳朮丸은 滯氣를 깨트리고 消食하는데 木香, 枳實 各一兩, 白朮 二兩으로 이루어져 있다.⁸¹⁾ 이로써 思의 과다로 인해 氣가 맺혀서 발생한 痞滿 중에 滯氣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感情으로 인한 病症과 病症으로 인한 感情을 다스리는 방법은 感情의 相剋, 五臟의 補瀉, 氣機 運行의 調節 등으로 大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結論

感情과 病症의 相關性에 대해서 '氣機의 運行'의 측면에서 살펴본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內經』은 주로 感情과 五臟의 관계, 感情과 氣機 運行의 관계를 비교적 상세히 논술하고 있지만 感情 중 怒, 恐, 驚으로 발생한 病症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儒門事親』은 感情으로 발생하는 病症을 補充·敷衍하였으며, 『醫學入門』은 感情으로 유발된 각각의 病症을 위한 치료까지 제시하였다.

『內經』에 의하면 感情은 氣機 運行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 가지 病症을 유발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逆으로 특정한 病症은 氣機 運行에 영향을 미쳐서 感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心에서 발생하는 感情이 病症을 유발한 경우, 感情을 다스리는 방법 이외에도 五臟의 虛實을 補瀉하거나 氣機 運行을 조절하는 藥物로써 치료할 수 있다. 이는 感情이 氣機 運行을 거쳐 病症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정 病症이 心에서 발생하는 感情을 유발한 경우, 五臟의 虛實을 補瀉하거나 氣機 運行을 조절하는 藥物로써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感情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는 특정 病症이 氣機

75)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2307.

76)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2307.

77)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2307.

78)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2024.

79)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2307.

80)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2307.

81)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2307.

運行을 거쳐 感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氣機의 運行的 측면에서 感情과 病症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感情과 病症이 서로 관련된 경우에 氣機 運行的 변화를 조절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기존의 藥物뿐만 아니라 장차 鍼灸 治療의 원리로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參考文獻

<논문>

1. 엄현섭. 情緒(感情)와 Stress의 關係에 관한 理論的인 研究. 동서의학. 1992. 17(4). pp.5-20.
2. 이태균. 부인과질환과의 상관성에 관한 문헌적 고찰. 동서의학. 1990. 15(4). pp.67-79.
3. 고태준, 이상용. STRESS 現象과 關聯된 諸氣證에 關한 文獻的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2000. 8(2). pp.317-327.
4. 이승재, 정승현, 이원철. 칠정과 소화기 질환에 관한 비교고찰. 동의신경정신과학지. 1996. 7(1). pp.121-135.
5. 박병준, 김성훈. 感情과 癌의 相關性에 對한 東西 醫學的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1999. 8(1). pp.223-243.
6. 도은섭. 七精過度로 인한 膀胱炎症의 治驗例. 월간 의약정보. 1985. 6. pp.154-155.

<단행본>

1. 동의문헌연구실 역. 신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2114.
2. 潘楫. 醫燈續焰.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20.
3. 劉完素 著. 胡國臣 主編. 劉完素醫學全書·素問玄機原病式.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97.
4. 李中梓. 醫宗必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p.573.
5.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1270, 2006, 2024, 2202, 2225, 2282, 2296, 2298, 2307, 2308. pp.1391-1392.
6. 張從政 著. 胡國臣 主編. 張從政醫學全書·儒門事

- 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56-57.
7. 陳士鐸. 胡國臣 主編. 陳士鐸醫學全書·石室秘錄.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39, 429.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6, 23, 24, 74, 86, 89, 92, 146, 157, 162, 173, 185. pp.184-185, 216-218.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8, 50, 57, 68, 69, 158, 224, 286. pp.81-82.
10. 華陀 撰. 孫星衍 校. 華陀中藏經. 발행처 미상(중국). 自由出版社. 발행년도 미상. p.28.
11. 滑壽 著. 윤창렬, 이남구, 김선호 편역. 難經本義.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p.90-95.

<기타매체>

1. 吳儀洛 著. 裘沛然 編. 成方切用·中華醫典 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